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상품권·숙박바우처 지원 늘려달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부겸 총리 주재 회의서 권의 예산 3조원 규모로 증액, 지역경제·관광산업 활성화 이끌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확대와 숙박바우처 정부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지역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 회의

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과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다.

황 회장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시민이 체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1조 522억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내년 2400억원으로 77.2%를 삭감했다”며 “하지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이상인 3조원 규모로 증액해 소비 진작 효과가 지역 골목상권에

모세혈관처럼 녹아들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관광산업 회복 방안과 관련해 “현재의 높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며 “관광명소나 콘서트 등 행사에 방역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 바우처 예산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해야 하고, 미등록 농촌 민박시설의 안전조치 등 기준을 마련해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기초지방정부 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상회복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비상시 방역 체계를 되돌릴 수 있도록 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천혜의 전남,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최적지

전남도, 온택트 투자설명회...완도 중심 우수 입지 중점 홍보

전남도가 지난 12일 잠재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남의 해양바이오 및 해양치유 산업 입지의 강점 등을 알리는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투자유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비교우위 산업 분야 중심으로 비대면 투자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이번이 10번째다.

투자설명회는 완도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 이뤄졌다. 이날 참여한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 기업인 등 200여 명은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옴트전남튜브’를 통해 실시간 소통했다. 전남도는 완도 중심 해양바이오·치유 산업 입지 여건 등 투자 환경을 집중 홍보했으며, 이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신뢰를 더했다.

현장에서 주재 발표한 김춘성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수센터장은 “완도가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한기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전남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치유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국민의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

화를 위해 해양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 새천년 전남 비전 ‘블루 바이오’ 시대를 실현하고 있다.

다시마, 톳, 미역 등 해조류를 특화한 건강 기능식품 등 60여 제품 특허 등록을 마치고, 기술이전과 대규모 생산공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북 내장을 활용한 코로나19 억제 효과도 신속히 검증에 마쳐 상품화할 예정이다.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완도의 해양치유 산업은 2017년 전국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됐다. 지난 3월 해양치유센터 착공 등 오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각종 해양치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해양치유레저리조트 및 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양치유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병용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해조류의 고품질 완도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세계가 인정하는 천혜의 지역으로, 이같은 여건을 토대로 해양바이오와 해양치유 산업 기반을 닦고 있다”며 “관심 있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완도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원들이 지난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라선(강남 수서~여수)에 SRT를 즉시 투입·운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전라선에 SRT 투입하라” 촉구

“철도통합 문제와는 별개...국민 편익위해 즉시 운행” 성명

전남도의회가 ‘전라선 SRT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추석을 전후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철도노조 측 반발로 열차 투입이 늦어지자 도의원들이 전라선 SRT 투입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지난 11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라선 SRT 투입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은 “정부가 철도교통망을 확충하는 이유는 국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하고도 이용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재정 낭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선 SRT 운행은 철도통합 문제와는 별개 사안으로 노사갈등이나 철도민영화 등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란으로 열차 운행이 늦어질수록 결국 희생은 전남 동부권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전라선에 SRT를 투입,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T 전라선 투입은 여수~수서(강남) 구간 고속철도 운영을 말한다. 현재는 여수~서울역을 잇는 KTX만 운행되고 있어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수서역(2강남권)으로 가려면 KTX를 타고 오다가 갈아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철도노조 등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SRT를 운영하는 SR과 코레일로 나뉜 분리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 세계 김치축제 폐막

31만여명 방문, 김치 34t 판매

‘천년의 김치, 광주와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29일 개막한 제28회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14일 폐막했다.

행사 기간 중 온라인 김치 마켓, 오프라인 김치 광장에서 34t, 3억8천만원 상당 김치가 팔렸으며 홈페이지 누적 방문객은 3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자매도시를 포함한 프랑스, 뉴질랜드, 광 등의 11개 도시와 줌(zoom)으로 연결해 진행한 김치 달리기 행사 ‘글로벌 K-김치 아카데미’는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전 예약제로 김치 밀키트를 받아 집에서 직접 담그는 프로그램, ‘꼬마 요리사 김치 요리 교실’에는 1천여 명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전국 요리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령이 결린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에서는 신명화(경기도) 씨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김경희(김해) 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이영숙(경기도) 씨는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국내외 관광객 맞이 준비

전남도, 대표여행사들과 간담회...해외관광객 유치 협력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지난 12일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초청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트래블버블(비격리 여행 권역) 국가별 관광분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무안국제공항 관광 재개를 대비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관광재단은 간담회에 참석한 여행사 대표를 위해 전남 동부권의 대표 관광자원인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등 팸투어를 지원했다.

팸투어에 이어 참석자들은 도립국악단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시범 운영하는 공연관광 프로그램 ‘남도 산악지 판국’도 관람했다.

여행사 대표들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해외관광객 격리 면제 및 지방국제공항 입국 허용 선결을 강조하면서 인센티브 확대

및 스마트 관광 지원 등 전남도의 획기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전남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힐링 상품의 마련 및 해외 홍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여행사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도 요구했다.

전남도는 12월 중순까지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인바운드 여행사 전남관광 해외홍보비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우수 여행사의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전남관광협회와 후속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최근 여행 트렌드는 안전·힐링에 있으므로 전남의 섬과 산을 중심으로 한 ‘거리 유지 여행’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조만간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해외관광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 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자동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